

# Work In 아리랑 Job Festival 개최

## 채용, 직업체험, 무료진료, 공연과 함께 한 축제 한마당

취재 | 임재근 기자

Work In 아리랑 Job Festival 행사  
충주다문화센터공연팀, 근로복지공단 Bliss Day 밴드



OIO Work In 아리랑 Job Festival 행사  
충주다문화센터공연팀, 근로복지공단 Bliss Day 밴드



지난 5월 2일 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조철호)은 지난해 구축한 다문화가족 고용지원사업(일과 희망의 징검다리)인프라를 기반으로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충주·음성·제천·단양 다문화가족 800여명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 Work In 아리랑 Job Festival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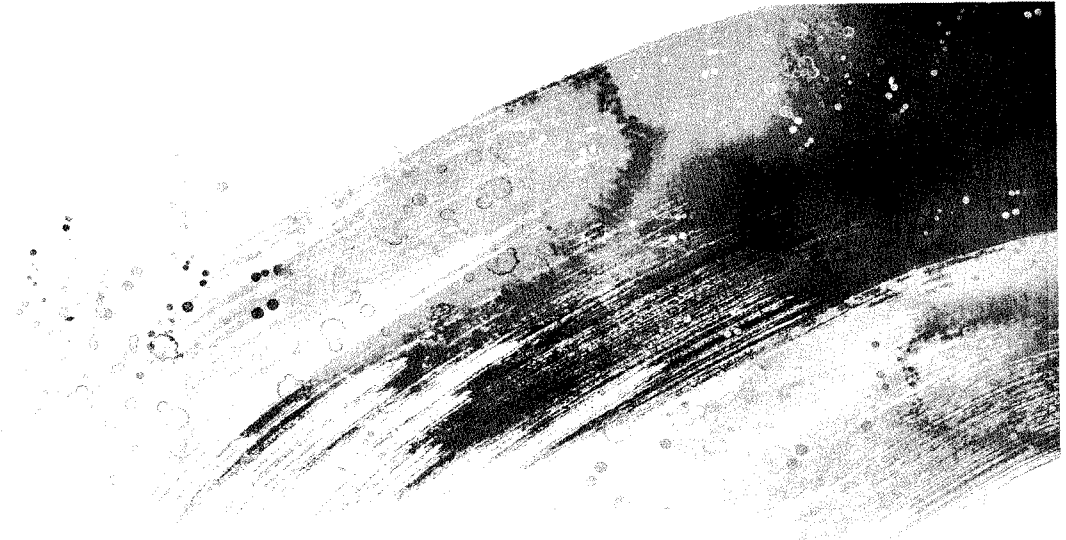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최근 충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민자 상당수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언어·문화차이·취업능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알선과 다문화가정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자(배우자 포함)에게 일자리 제공, 직업체험, 무료진료, 문화공연 등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되어 온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알선해 주고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함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사단체, 대학, 봉사단체, 의료기관, 실업자훈련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었다. 특히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김혜성 국회의원이 참가하여 이번 행사를 주최한 노동부 충주지청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직업체험관과 공연관 등을 참관하였다.

행사는 채용관, 의료서비스관, 직업체험관, 홍보관, 공연관 등 총 5개 섹션으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채용관에서는 15개의 면접 부스가 설치되어 직접 참여한 기업의 즉석에서 현장 면접이 이루어 졌으며, 이력서와 면접리스트를 작성하여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간접 참여기업에게 송부, 동행면접을 지원하였다. 또한 당일면접에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의료지원관에서는 충주의료원 등 3개 기관에서 가정의학과, 혈액검사,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운영하여 우울증 검사 및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였으며 진료 후 약제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무료로 약제를 제공하고, 진료 결과는 당일 개인별로 통보해 주었다.



직업체험관에서는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해 직업적성검사를 바탕으로 진로지도를 하였으며, 한국어능력시험 지원부스를 설치하여 한국어 능력시험 소개와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공연관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여성의 사례발표와 충주다문화센터 공연단, 근로복지공단 밴드(Bliss)의 국가별 민요 연주 등이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노동부 충주지청 조철호 지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문화가족이 일자리를 통하여 더 행복해 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는 약 100여명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문화가족 구직자가 원활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다문화 민속공연, 장기자랑 등 다문화소통프로그램도 진행하여 함께하는 사회 기를 마련에 기여했다.”고 평하고 “앞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